



2024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2024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이 글은 2024년도 서안교회 수요, 일요 성경 공부 내용을 모아 정리한 노트입니다)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https://blog.naver.com/shindk55>

shindk55@gmail.com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머리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25:1]

바람이 없으면 풍향계는 할 일을 잃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풍향계는 맞바람을 향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의 때, 풍향계처럼 환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향한다. *[시121:1-2]

거기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육체로의 출생이 곧 환난의 시작이다. *[시51:5]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와 인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타락의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127쪽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고전3:16-17/ 20240103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게 되면, 그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연고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령 대신 다른 세력이 세워져서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이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삶이 보장된 자들이다.*[롬8:14, 고전3:21-23]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나라인 교회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성도 중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 변화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고,*[엡4:22-24]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는 일이다.*[벧후3:18]

바울은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을 지적할 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우월함을 나타내려는 세력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나 전도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도자의 것이 아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바울 교회'라는 말을 한다면 바울은 심히 민망해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과 성전의 연결체*[엡2:21]이고, 성도가 보호함을 받는 곳이고, 성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고전3:21-23] ✞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충성/ 고전4:1-2/ 20240107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의 세계는 깨달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골2:2-3]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忠誠, kjv.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a man be found faithful)이다.

이는 유월절의 신비한 구원의 세계를 무교절의 규례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케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마음에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이다. *[고전5:8]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과 범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만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지적한다. *[6절]

이는 구원의 은혜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에 세워지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15절]는 말씀에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낳은 자녀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자는 많지 않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가르치려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9-14절] 복음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갔고,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각(先覺)의 모습을 본다. ㅎ

형제라 일컫는 자/ 고전5:11-13/ 2024011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님의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갈6:1]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것을 보거든 간구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님*[요일5:16]을 말씀에 지시하고 있다.

소 도적에 대한 형벌이 양 도적에 대한 형벌 보다 중하고, *[출22:1] 약혼한 처녀가 성내에서 욕을 보는 일과 성밖에서 욕을 보는 일에 대한 형벌이 다르다. *[신22:23-27]

율법에는 표면적 행위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질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약혼한 처녀는 한 남자에게 속한 여자이고, 형제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옮겨진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형제라 일컫는 자와 형제가 아닌 자의 육체와 정욕과 더러움은 동일하지만, 형제라 일컫는 자의 범죄와 형제가 아닌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다르다.

약혼한 처녀가 성내에서 욕을 당하면 강간이 아니라 통간이다.

이곳은 당하는 자가 정혼한 사실을 외치면 강폭한 세력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형제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의 신분이다.
그러나 그 범죄의 형태가 스스로 신분을 포기하는, 궤방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교회는 물리쳐야 할 것이다.

교회는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제하는 곳이다.
이 누룩은 음행과 탐람과 우상 숭배와 후욕과 술 취함과 토색하는 자를 만든다. ☞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고전6:13/ 20240114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지체이다. *[엡1:23, 엡5:23]
몸이 주를 위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 삶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약4:4]

음란은 두 주인*[마6:24], 두 남편*[롬7:3]을 섬기려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려는 종교 활동인데, 하나님은 이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 음란은 모든 인생의 중심에 흐르는 세력이고*[골3:5, 롬7:22-23]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자들을 위한 구원이 되었다. *[골1:21, 롬5:6-10]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력(履歷)을 가지고 있다.
원수되었던 세력과의 결별은 성령의 도움을 입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9:17]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한 곳에 보존된다. ☞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고전7:22-24/ 20240117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 당시, 기득 종교 세력은 예수의 몸값을 은 삼십으로 정하였다. *[마26:15]

대속의 은혜를 ‘빛의 탕감’으로 여길 때, 그 빛은 값을 수 없는 액수인 ‘일만 달란트’이다. *[마태18:24-]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딤후2:6]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러한 댓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벤전2:9]

이 신분을 얻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다윗의 권고는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엡4:22-25] 구체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다.

원욕*[약1:15] 위에 세워진 인간 관계는 주종 관계나 원수 관계로 진화한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죄의 삶을 인하여 대속하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이전의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 나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 ☞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과 사랑/ 고전8:1-3/ 2024012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바 되었느니라

욕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다름 같이,*[갈5:16-23]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우상이 사람의 탐욕에서 만들어지는*[골3:5]

‘허구’일뿐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관한 지식은 더없이 공허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부패한 지식일 수밖에 없다. *[롬1:23]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마음에 우상이 숨쉬고 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가증한 악취를 뿜는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이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지식은 우상 숭배자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없으나*[고전12:2]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7절] 이 허구의 세력이 구습에 익숙한 어리고 약한 양심을 더럽힌다.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도 아무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아무 것도 아니다.*[4절]

우상의 제물이 식탁에 놓여지면 음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전10:25,26]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이 자유함과 권리가 형제로 실족케 한다면 이 자유함과 권리를 아는 지식을 따라간 결과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으로 우쭐대는 자는 누구인가?
우상의 전(殿)에 앉아 식물을 먹는 자가 자신의 자유함으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 처럼, *[10-12절] 복음의 지식과 믿음을 과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 아니겠는가?

육체의 일, 육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

절제/ 고전9:25-27/ 20240124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자유자와 사도인 바울이 누린 자유와 사도로서의 삶의 규모와 방향은 그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은 자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사람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열매는 육체의 것이고 썩을 것이다.

사랑과 함께 ‘절제’는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보상이고 바울이 얻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입김은 바울로 하여금 향방 없게 아니하고, 허공을 가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였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의 구체적인 동작이다.

만일 절제하지 못한다면, 육체의 요구가 강하여서가 아니라 썩을 것과 썩지 아니 할 것에 대한 분별을 얻지 못한 결과이다.

바울이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리라. ☞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고전10장/ 20240128

그런즉 선 출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0,21절]

하 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

광야 40년 동안 나타난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암시된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의 일은 악을 즐겨한 것,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 이고 결국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바라신다.

먼저 “선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일이다. 곧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려는 일이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되지 못하고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양과 형식에 치우친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귀신의 잔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젖밥에 관심이 있는 자의 잔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을 드는 일이다. ☞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고전11장/ 2024013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은 바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사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이고 교회가 바울을 본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다. *[창1:27, 엠1:23]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임을 증거한다. *[고전10:16-17]

주의 십자가 세례로 ‘한 몸’이 되었고, 주의 만찬으로 ‘한 몸’에 참여한다.

주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거룩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자신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 고전12:1-3/ 20240203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
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神靈)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이다.

예수를 주(主)시라 부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은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이다.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지혜로. 예수를 주라 부른다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대
로 끌려가는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도로 새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의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처
럼, 사람의 영과 가르침을 좇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스
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질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롬1:22]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은 세상의 속한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고전2:13](#)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이다. ☩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13:1-3/ 20240207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 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패역한 인생을 위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요5:42](#), [요일4:7](#)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과 예언과 지식과 능력과 믿음은 이 사랑을 그려내는 퍼즐이다.

그리고 이 퍼즐은 각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고전12:11](#)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한 퍼즐 조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낼 수 없다.

이 사랑을 담지 못한 퍼즐 조각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입는 일이다. *[계2:4](#)

사랑을 입은 자*[엡5:1](#)는 그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고 성내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한다.

만일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이다. * [갈5:6, 딤후전1:5, 롬5:5] ✎

방언과 예언/ 고전14장/ 20240211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방언은 사람의 뇌의 통제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혀를 움직이게 한 언어이다.

이 언어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에게는 알아 듣지 못하는 비밀이다.

방언도 예언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은사인데, 통역이 없으면 알아 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안에 왜 필요한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언어이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바울은 권고한다.

비록 방언의 은사를 많이 나타낸 바울이지만,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다섯 마디 예언이 유익하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타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의 각 은사는 교회의 권위 아래 함께한다. * [막10:42-44]

선지자가 누구이고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먼저 교회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자가 아니겠는가? * [28, 30, 34절]

잠잠할 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지적 소유권이 있을 수 없

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주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교회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하라고 주신 것이다. * [고후1:24] &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15장/ 20240214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다. * [20절, 요12:24, 32]

이 부활은 첫사람 아담의 형질(形質)을 다시 입는 부활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과 신분을 갖는 부활이다. * [고후5:17]

후패한 영역에서 쇠함 없는 영역으로의 도약이고 구원의 실현이다. * [고후4:16, 뱀전 1:3]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하며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구원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53:5]

그리스도의 찢림과 죽음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한 결과로 여겨진 마음에 예수의 세계는 세력을 얻는다. * [행2:37, 갈2:20]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 [사24:1-3, 사25:6-8]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17:9]

심히 부패한 것, 욕된 것, 그리고 연약한 육의 몸을 말씀대로 부패하고 욕된 것으로

여기는 심령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벗을 썩을 몸과 썩은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 ✞

예수를 사랑하는 자/ 고전16:22/ 20240218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번째 편지의 끝을 정리하며 문안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여기는 초대 교회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초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흐르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를 향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8-9]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 믿음은 예수를 보고 믿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엡1:13] 구원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힘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힘이 된 자들의 세계이고 그 힘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卍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1:1-5/ 2024022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다.

말씀이 믿어지려면 말씀이 들려야 하고, 말씀이 들리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이다. *[막4:9]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사29:18]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날이 있다. *[사35:5, 마11:5]

만일 귀머거리가 귀머거리인 줄 모르고 살다가 자신이 귀머거리인 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 날은 “너는 귀머거리다”는 음성을 처음 들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소리는 음파에 의하여 전달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알게 하는 영적 분별이다.

이 진실과 분별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면,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아는 진실과 분별을 얻지 못한 결과이다.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가 닫히고 눈이 멀은 첫 사람 아담의 세계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부인 곳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의 결과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졌다.

이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나뉘어진, 빛이 있는 세계이다. ☞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 고후1:5/ 2024022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 없는 위로는 없다.

바울은 당시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골1:24-29]

고난 없는 신앙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흘러간다.

교회의 외부 세력으로 인한 물리적인 고난과 교회 안의 신앙에 관한 고난*[고후4:8]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 고난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의 고난은 주식(主食)이다.
‘고난’을 밥으로 먹으면 ‘위로’라는 에너지를 얻는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3:1]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의 이 다윗의 탄식은 결국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

‘겨울’이라는 환난으로 앙상한 속 살이 드러난 나무가 거기에서 또 봄의 소망을 품으며 자라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잡다한 것으로 가려진 인생의 속살을 드러내며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한다.

“우리가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35:3] ☞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 고후1:24/ 20240228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도와 성도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일지라도 성도의 믿음은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번에 주신 믿음*[유1:3]으로 얻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신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을 가진 자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다.
할례가 훈장이 된 유대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갈2:4]가 그렇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요삼1:9]가 그렇고, 오늘날 규모와 숫자에

집착하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폐단의 모습은 교회 안에 사람의 공로와 자랑이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땅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공로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멸하신다. *[고전3:17, 막13:14]

교회는 ‘우월한 자’의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 육적 세력을 제어하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3:3] ✞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2:14-16/ 20240303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향** 나무는 짙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이 말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아2:2]와 같이,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문장이다.

찌르고 죽이는 자의 패역과 죽임 당한 예수가 만나 ‘대속’이 성취 된 곳, 십자가는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진 구원의 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갈2:20]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드러난 마음에 묻혀진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한다. ☞

새 언약의 일꾼/ 고후3장/ 2024030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호칭이고, 새 언약의 일꾼 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심비(心碑)에 기록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이다.

이곳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돌비에 기록되었던 이전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으나 정죄의 직분이었고, 살려 주는 영의 의의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은 길이 있을 영광 가운데 있는 신분이다.

모세는 수건으로 없어질 꺼풀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가렸으나*[출34:29-35]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벗어졌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자의 영광과 거룩함을 입은 자의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과 함께한다. *[히2:11]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창24:65] 부부가 된 후에는 면박을 벗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광과 자유를 누린다. ☞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후4:3-6/ 20240310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
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
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복음이다. *[딤후1:11]

이 빛이 비취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요1:1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볼
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사람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한다. *[롬3:23]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롬8:30]

그러나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세력, 복음을 가리는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복음
을 빙자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요12:43, 롬1:23]

보배로운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보배를 담은 지혜와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천한 곳에 있는 자를 기념*[시136:23]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어진 그릇에 보배
가 담긴다. *[렐18:4]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이라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이 둘을 잇는 홍색실은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 드리는 제물이다.*[레14:4]

이 상징적인 제물을 통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생의 경이로운 화목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다.

땅에 속한 질그릇에 하늘에 속한 보배를 담은 중첩된 형상도 그러하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이 배타적인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기기묘묘한 예수의 사역,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엡2:15-19]

이 지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낳았다.

이 피조물은 이미 후패한 겉사람과 날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조합된 존재이다. 썩어질 겉사람에 남아 있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흔적은 속사람의 생명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보배를 보배로 여기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는 일이다.

무너질 장막은 후패한 겉사람의 세계이다. *[고후4:16]

이전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질 수 있다. *[17절]

이전 것은 죽을 것이고 새 것은 생명이다. *[4절]

무너지고 벗겨질 장막에서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생명의 세력에 덮혀지고자 함이다.

집이 무너져도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으면, 무너지는 집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없다.

‘더 좋은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열매이다.

무너질 것을 무너질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급의 열매로 맺혀진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6] ☞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6:1-2/ 20240320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직책을 가진 자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고후5:18-20]

화목하게 된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구원*[사49:8]이고,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섬겨주신 모든 일의 압축된 언어이다.

지금은 성취되고 선포된 은혜와 구원의 날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골1:6] 육신의 행위에 머문 결과이다. *[롬11:6]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은 육신의 지혜와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의 몫이다. ☞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1:9-17/ 20240324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
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구체적이고 압축된 형상이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접할 수 없는 인생의 저주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라는 옷
을 입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 대속의 은혜는 그 이름이 믿어진 자에게 유효하다.

그 이름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이시다. *[마1:21, 단9:24]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모세의 율법이 믿어진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 덧입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고후6:14-18/ 20240327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
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
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행하시는 곳,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정한 것, 믿지 않는 자, 불의, 어두움, 벨리알과 구별된 삶의 방
향을 갖는다.

부정한 어두움의 세력이 만들어 낸 ‘우상’이 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종교 활동이다.

*[골3: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상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는’ 존재이지 ‘만들어진’ 존재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 우상이 만들어진다. *[사44:1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

히 여김이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그러나 사람의 정욕*[요일2:16]은 이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일5:21]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고후7:9-13/ 20240331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 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견고하고 뚜렷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과정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은 눈이 어둡고 하나님 없

는 이방인의 근심이다. *[마6:25-33, 막10:22]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큰 근심의 탄식이 있었고, *[롬7:24]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었다. *[고후 12:9]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입는 일*[살전4:3]인데, 사람에게 거룩함을 얻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

말씀 속에서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형성되는 근심이 아니겠는가?

말씀 속의 자기 발견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고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를 누리게 한다. *[눅14:25-35]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38:4,7] 卍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고후8:8-9/ 20240403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부요(富饒)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후4:18]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위치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셨다.

천국의 부요함을 담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기어지면, 작고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드는 부요한 공간이 된다. *[마13:31-32]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베푸신 믿음의 지식과 사랑의 풍성함은 물질의 연보(선물)를 통하여도 나타나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선물이 되셨다.

이 선물의 부요함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만족이고 유일한 자랑이다. *[고전1:30-3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의 부요를 누리며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 *[빌2:5-8] &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후10:3-7/ 20240407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성도의 분별된 삶은 비록 육신 안에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데 있다.

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권세이다. *[엡6:12]

그리고 이 세력과 싸우는 병기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은 언약, 곧 말씀이시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지고, 거센 풍랑이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잔잔하여지는 일은 상상 밖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미 굳어 견고한 생각의 성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다말, 라합, 롯은 하늘에 속한 강력한 분별의 힘이 그들을 이끌어 육신에 머물게 하는 견고한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육에 속한 생각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고후11:10-15/ 202404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이고 궤홀의 역군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고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들,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곧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이다. *[렐9:23-24]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일군, 수고, 고난 등 육신을 통하여 나타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바울에게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인하여 부득불 고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이다.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는 바울의 치명적인 연약함이다. *[고후12:7]

그러나 이 연약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궤혹의 역군은 이 은혜를 자신의 육체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영적 우월을 자랑한다.

그리고 온갖 신령한 것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교회를 주관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자유한 자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갈4:29, 2:4] &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 고후12:7-9/ 20240414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

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삿9:5]

이 왕의 교만은 '가시나무'로 비유된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삿9:15]

이 가시나무는 자신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

가시나무의 그늘이 썩터가 될 수 없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찌는 일이다.

사단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려는 세력이고, *[사14:12-15] 깨닫지 못한 것이 없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이다. *[겔28:2-5]

가시와 사단의 세력은 모든 인생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창3:5,18]

세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간 바울에게 깊고 깊어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함께한다.

그러나 바울이 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온전한 세력에 속하게 하였다.

자신의 무익함을 아는 종에게 유익한 주인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함께한다. *[눅 17:1-10] 

믿음에 있는가?/ 고후13:5/ 20240417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바울의 물음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ye be in the faith?)”이다.

자신이 택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이 믿어진 믿음은 다르다. 전자는 수동적 현상이고 후자는 피동적 믿음이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52:3]”는 말씀은 이미 결정된, 인위적인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 결정된 사실이 믿어진 자가 믿음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믿음에 있는 자의 구원은 인위적인 지혜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구원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또 다른 세력이 함께하였다면 그 구원은 다른 복음에 의한 구원이다. * [갈1:6]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요15:4]과 같이 ‘믿음에 있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붙잡힌바 된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 * [벧3:12]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믿음에 있는 자이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 있는 자는 주의 믿음을 받은 자이다. * [약2:1]

진리와 믿음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 [롬10:17]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형성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면”이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응답하셨다. * [눅17:5-6]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예수의 인식이 충돌하였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믿음에 서려면 예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힘은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

번제/ 레1:1-3/ 2024042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찌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찌니라

출 애굽기의 하나님은 시나산에서 말씀하셨다.

레 레위기의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와 그 규례에 관한 기록이고, 모든 제사의 상징적 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여 준다.

‘번제’는 하나님 제사의 시작이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을 드리며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하는, 모든 제사의 시작과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번제’의 원어, “olah”를 직역하면 ‘올림제’이다.

‘올림제’는 희생 제물 전부를 불로 태워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는 제사 형식에서 비롯된 단어로 여겨진다.

이 ‘올라간다’는 의미의 제사는 하나님께 소멸의 형태로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다.

이 번제의 세계는 이미 아벨의 제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제사,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물과 이들을 열납하셨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 앞에 선 모세는 그 소멸의 현장에서 소멸을 이기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소멸될 것을 소멸될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소멸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진다. &

소제/ 레2:1-3/ 20240424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는 생축을,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삼는다.

번제의 제물은 잡고(죽이고) 소제의 제물은 뺏는다.

죽이고 뺏는, 일견 잔인해 보이는 규제이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 과정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인생은 소멸의 현장에 있다.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소멸은 결정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제사는 소멸되기 전에 이 법칙에 다스려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율례이다.

이 하나님의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고 선명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고, 온유와 겸손의 고운 가루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의 백성을 섬겨 주신다. ☩

화목제/ 레3:1-5/ 20240428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3:3-5]

화목제의 히브리어 어원에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완성이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제이다.

바울 서신의 인사말이 ‘은혜, 평강, 감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제의 열매로 완성된다.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희생의 모든 기름을 태우는 화목제 제사는 피와 기름에 담긴 상징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심은 성도의 삶의 근거이고 지혜이고 권세이다.

이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누리는 완성된 세계이다. &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 레4:1-12/ 20240501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열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찌니 [3절]

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다. *[민 6:22-27]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화목케 하는 규례인데,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규례에 벗어난 제사를 드린다면 이는 제사장의 범죄이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난 '다른 불'로 분향하였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레10:1-2]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제사장의 범죄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열을 입게 하므로 제사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는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온 회중을 위한 제사 이전에 반드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벧전2:9]을 맡은 자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것은 다른 규례, 다른 불,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과 율법의 연약함*[롬8:3, 히7:18]을 극복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7:27-28]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9:11-12] ✞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레4:27-31/ 20240505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4:27-29]

여기에서 안수(按手) 행위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동일시(同一視) 여기는 표시이다.

그리고 드러진 예물이 열납되는 일은 속죄가 되었음을 증거한다.

흠 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준비된 희생인 것처럼, 안수는 죄인과 희생 제물이 ‘하나’임을 표한다.

예수의 ‘의’와 죄인의 ‘불의’가 만난 곳,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께 드러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시고 사흘만에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마

3:15]를 이루셨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4:25]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다. 함께 죽는 일 없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갈2:20]

죄를 깨달은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속죄제의 시작은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이다.

안수는 죄를 깨달은 회개된 마음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속죄 양이 만나는 접촉의 몸짓이고 ‘하나’ 됨을 알리는 규례이다.

열 두 해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께서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다.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 속의 모든 규례 속에서 우리와 예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레4:27-29/ 20240508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4:27-29]

여호와와의 금령(禁令), 행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범한 자가 지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속죄제가 드러질 수 있다.

범한 죄에 깨우침이 없으면 속죄도 없다. 죄를 깨닫는 일은 속죄에 이르는 회개이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들었으나 말씀을 어기고 금령의 실과를 먹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범죄는 그 실과를 먹은 일이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어버린 일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일이다.

범죄의 진원(震源)은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격리된 사망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다.

죄를 깨닫는다는 일은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서 회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다.

이 깨달음의 회개는 육적 지식이 조립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육적 지식의 허구와 모순과 어두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 속의 영적 지혜이고 열매이다.

마치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일과 같다.

성경은 이 영적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깨닫는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

속건제/ 레5:1-6/ 20240512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5:5-6]

허 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32:1]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구원의 세계를 노래한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것 중에는 법과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것과 자복(自服)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레위기의 시작이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는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 백성의 규례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건제는 화목제와 함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 것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고 온전한 세계*[히10:14]를 누리게 하시는 규례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섬김’에 화답하는 삶이다. *[엡5:19]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귄”을 위한 것이고 사귄은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다.

사귄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교류이다.

육신의 연합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뚜렷이 하고 누리게 하는 배경이다.

속건제의 자복은 이 교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다. ☞

부정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5:1-6/ 20240515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5:3]

허물이 있어야 허물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시32:1]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하고 죄를 깨달은 자가 죄 사함의 구원*[눅1:77]에 이른다.

부정한 것을 만진 허물과 그 부정을 깨달은 허물이 같지 않다.

부정을 만진 허물을 아는 일은 일차적인 지식이고 그 허물과 부정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이다.

맹세하는 일로 인한 허물도 깨달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 *[마5:33-37, 히6:13-16]

부자(富者)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 새끼를 빼앗았다
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대노하여 이런 자를 죽일 자라고 하였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법을 아는 자이지만, 그 법 아래 자신은 없었다.*[잠6:1]

선지자 나단은 이러한 다윗에게 ‘죽일 자’에 속한 줄 알게 하였다. *[삼하12:1-15]

그리고 시편 51편은 죄를 깨달은 자의 노래이다. ☞

오호라 나의 형제여/ 왕상13장/ 20240526

벤엘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벤엘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
암과 그의 단을 저주하고 예조(豫兆)로 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지게 한 사실
을 아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길 청하였으나 하
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거절하였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떡과 물로 대접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숙여 자기 집으로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일을 지적하고 죽을 것과 그 시체가 열조의 묘실을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
언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獅子)를 만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였
다.

이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며 탄식하
였다.

"오호라, 나의 형제여!"

이미 어그러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는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슬픈가? 그리고 그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에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가? &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레6:12-13/ 20240529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소 멸될 것을 소멸될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그 소멸될 것에 메인 삶에서 벗
어날 수 없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벧3:3]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고 기본일텐데,
꺼지지 않는 번제단과 그 불의 세력에 다스려진 마음이 시온좌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레7:28-34/ 2024060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
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7:34]

화 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규례이다. *[고후5:17-21]

하나님께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
잡혀 일하신 예수의 마음*[벧2:5-8]과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권세이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받은 뭇, 요제로 드리는 희생의 혼든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희생의 우편 뒷다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응식(應食)이고, 요제와 거제는 화목케 하는 능력의 근거를 제시하는 상징적 시그널이다.

여호와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그를 결박하였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었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일 수 있었다. *[\[삿15:14-16\]](#)

그러나 삼손은 그 큰 구원의 현장에서 심히 목말라 하였다.

왜 삼손은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삼손 자신의 힘으로 일천명을 상대한 결과가 기진한 목마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능력은 나귀 턱뼈에 있는 것도, 삼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권능에 있다.

흔들리는 가슴과 들린 뒷다리에 능력이 있지 않고, 이 재물을 쥔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화목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

피를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레8:22-24/ 2024060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레8:23\]](#)

죄인들을 위한 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형상으로 성도들을 이끄신다. *[\[히4:14, 7:26, 9:11-12, 벰전2:5,9\]](#)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세밀한 대속의 울레가 담겨 있다.

그 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과 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는
규례는 구원에 이르는*[히9:28, 뱀전2:2] 성도의 삶과 지혜를 전한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히9:22]

오른 귀의 더러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기 의로 진리를 거부하는*[눅1:18, 10:3] 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건이 아닌가?

에덴에서 여자는 뱀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아내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가증한 첫째 아담의 세상 끝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

나답과 아비후-1/ 레9:24, 10:1-2/ 20240609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9:24]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10:1-2]

불은 소멸하는 세력이다. *[히12:29]

불 소멸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세계이다. *[창6:3, 료8:7, 마25:41, 히
10:27]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과 피의 규례를 집행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하였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마 15:8, 사29:13, 요4:23-24]

향로에 채울 여호와와 명한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어야 하고 *[레16:12] 하나님의 육에 대한 판정을 담은 불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치실 가증한 대상이다.

오늘날 제사장 된 성도들의 마음에 소멸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채워져 있다.

이 분별이 거룩한 삶을 누리는 힘이다. ☞

나답과 아비후-2/ 레10:9-11, 15/ 20240612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을찌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레10:9, 15]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향로에 여호와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을 때, 여호와와 불에 삼김을 당하였다.

이 극렬한 하나님의 처단은 은혜와 교회의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인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다른 불의 분향은, 오늘날 복음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다른 복음'*[갈1:6-9)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예표가 될 수 있다.

포도주와 독주가 육적 세력을 복발(復發)하게 하여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세력으로 복음을 업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할 성전의 중심에서 여호와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지극히 가증한 이십 오인의 장로를 보았고,*[겔8:16]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24:15]

인위적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가증한 것으로 취급된다.

요제와 거제물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자기 세력이 거세된 제사장의 형상이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이다. ☞

신령한 자/ 고전2:12-16/ 20240616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2:12-14]

'신'령한 자'의 헬라어 '프뉴마티코스'는 '육체적이 아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서 소외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신령한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이다.

신령한 자로의 시작은 세상의 영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는 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자는 신령한 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나, 신령한 자는 자신 속에 경험된 믿음을 근거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를 분별할 수 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5]

신령한 자는 땅과 하늘, 저주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모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다. &

부정한 짐승/ 레11:44-47/ 202406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레11:44-45]

하 하나님이 흠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은 아담에게서 나왔다. *[창2:19]

그 이름들이 짐승들의 다양한 습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흠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지은 짐승들의 이름은 아담에게 있는 육(肉)적 성품들을 근거로 표현된 것이리라.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모든 짐승의 두가지 성품은 부정하든지 정한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부정한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 *[사64:6]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이 부정한 아담을 위하여 흠없고 정한 양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다.

방주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을 때 모든 기식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 생명의 '새 날'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돼지가 양처럼 살 수 없다.

부정한 짐승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정한 짐승이 될 수 없다.

부정한 짐승이 정한 세계를 누리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정한 세계'는 '부정한 것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이다. ☩

자녀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 레12:1-7/ 202406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
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 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12:2-4]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칠일 동안 부정하고 남아(男兒)는 삼십 삼일, 여아(女兒)
는 육십 육일이 지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산혈을 깨끗케 하고 정결함을 입
는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욘25:4]

내가 최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51:5]

오늘날 인간 중심, 인간 중시(重視)의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출산을 부정
한 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이
다.

그러나 이미 부정한 인간에 관한 이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없다.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찌니라 [눅13:13]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한 존재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도 부정하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속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는 번제와 속죄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

문둥병/ 레13:1-6/ 20240626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
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중 한 제사자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찌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
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13:2-3]

나 병균의 활동이 피부에 나타나면 환자의 몸은 빠르게 썩어 사망에 이른다.
인생의 년수가 칠 팔십이라도 그 결과는 무덤에 들어가 썩게 된다. *[시90:10]

땅에 머무는 시간이 백년이든 천년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경점(更點)이다.
결국 썩게 된다는 결과를 근거로 모든 인생은 나병 환자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나병균과 같은 부정한 세력에 감염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덮고 다스릴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구원을 이루셨다.

레위기 13장 나병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하는, 제사장의 관찰 아래 판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나병 환자는 피부 아래 감춰진 부정한 세력이 표출되어 부정한 활동으로 나타난 자이다.

만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면, *^[롬1:23]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은 영적 나병과 같은 부정한 세력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민12:1-10],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거룩한 직분을 무시하고 분향하는 웃시아*^[대하26:19]에게 문둥병이 발하였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밖의 인생이 아니라 썩을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3:4] ✎

다 희어진 자/ 레13:9-16/ 20240630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찌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레13:12-13]

오랜 문둥병자들 중에 문둥병이 크게 발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퍼져 '다 희어진 자'는 '정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부정하다'는 판정 아래 있는 문둥병자들은 큰 고통 중에 '다 희어진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 희어진 세계'가 육신의 열망으로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도리어 육신의 소망이 끝이 난 곳,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 *[시편 38:4-5, 시40:1, 시41:12]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께 나와 긍휼을 구하였을 때, 예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의 온 몸이 희어지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왔다. 예수는 깨끗함을 받은 아홉을 찾으셨고,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구원을 증언하셨다.

'다 희어진 자'가 정결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자는 정결케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또 하나의 '다 희어진 자'의 이야기가 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만나 익은 곡식을 거두듯이 여인을 구원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제자들에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4:35] ☞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찌니라 [레13:52]

히 나뉘는 아담에게 입혀 준 '가죽 옷', 야곱의 몸을 가려 준 염소 털, 여리고
정탐을 가려 생명을 보존하여 준 '삼대'*[수2:6]와 씨와 날로 직조된 세마포 제
사장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심판과 자비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구원의 옷'*[롬4:7]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구속의 예
표이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완전한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히11:26-29], 이는 성령
을 훼방하는 일이 된다.

이 죄악은 부정한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육신을 대속한 언약에 대한 죄
악이다. *[엡6:12]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6:4-6]

아직 맛 보지 못한 자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맛 보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
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없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
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
라 [히6:7-8] ☩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 레14:1-9/ 20240707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14:4]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이다. 문둥 병자도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문둥 병자'이어야 한다.

문둥 병자이기만 하면, 정결케 되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백성의 진 밖으로 쫓겨난 문둥 병자 중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문둥 병자는, 머리를 풀며 잇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판정에 다스려진 문둥 병자이다.

죄를 깨닫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사함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 [요 1:16]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부정하고 "정하다!" 말씀하시면 정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감각 없이 아버지를 떠났다. * [눅15:11-32]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하여 부정한 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의 모든 부정을 능히 덮을 '은혜의 세계'가 둘째 아들 위에 임하였다.

문둥 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은 '전신 문둥 병자'로 제사장의 판정을 받은 날이다.

* [호1:10]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136:23]

정결함을 위하여 준비된 정한 산 새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시이고, 희생 제물과 함께 준비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 [엡1:10] 완성된 하나님

의 사역의 예표이다. ☞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레14:5-9/ 20240710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찌며
[레14:5-7]

문둥 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는 내밀(內密)하고도 세밀(細密)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살아 있는 정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희생으
로 역할을 담당하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어 보내는 아사셀*[레16:8]을 위한 염소
처럼 들에 날려 보낸다.

하늘로 오신 분께서*[요3:31] 파상(破傷)해야 마땅한 질그릇*[렘18:4]과 같은 부정한
자를 위한 피를 흘리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며*[히1:3], 부활하시므로 산
자*[고후4:11]들의 능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과 말씀으로 인한 정결과 성령으로 인한 능력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보배'의 세계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다.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여기는 마음,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보
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136:23]

은

유출병/ 레15:1-7/ 20240714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영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15:3-5]

'**유**출병'의 한자어 '유출(流出)이 그렇듯이 원어적 의미도 "흘러 나오다"이다. **유** 사람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다양한, 어찌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부정적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판정은 더욱 확고하고 치명적인데, 사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잠6:5],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사59:7],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규정한다. *[마15:18] 그러니까 유출병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더러움의 세계를 설명하여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의 육체는 마치 구정물통 같고*[눅14:4], 더러움을 방치하고 용납하는 세계이다. 이 더러움이 흘러 나오면 그 더러움에 접촉되는 것마다 함께 더러워진다.

노아 때 홍수는 이 모든 더러움에 대한 심판이고 경고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3,7] 은

노아를 물에서 구원하는 방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3:21]

육체의 더러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분별의 선한 양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옮겨주셨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후 7:1]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레16:7-10/ 20240721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찌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찌니라 [레16:8-10]

레 위기 16장에 기록된 일년 일차 드리는 대속죄일, 7월 10일은 비로소 둘째 장막*^[히9:7]의 휘장이 열리는 큰 안식일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수염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고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결정되고, 그 결정이 백성의 마음에 함께 이루어지므로 온전한 속죄를 이룬다. *^[레17:1] 만일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백성은 죄에 매인 삶을 산다면 반쪽 속죄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사 44:22]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의 속죄소(시은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른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대신 지고 온 회중을 지나 광야에 보내어 무인지경에 이르도록 한다.

아사셀(אֲסַאֵל : az-aw-zale' : 아자젤)은 '염소aze' + '가다aw-zal'의 합성어이다. '내 어보냄의 염소', '온전한 제거', '속죄의 염소' 등 여러 해석이 있으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소들의 상징적 '역할'을 통하여 아사셀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역할은 '죄를 지고 가는 구원의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메신저의 형상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룬 곳은 광야, 무인지경, 땅 끝, 세상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리라.*[시103: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성소의 휘장을 열어 놓아 영원한 속죄의 근거와 완성을 증거하고*[히9:12,20, 마27:51],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마치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팔 벌리고 계신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사65:1-2] 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17:11/ 20240724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17:11]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창일한 사망의 세력 가운데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며,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본토 친척 아버지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롬4:17]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죽은 자를 위한 생명은 화목 제물 희생의 피에 두셨다.
죽은 자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죄를 속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은 '살리는' 권세로 일하신다.
아담을 위한, 짐승의 피를 흘려 얻은 가죽 옷에 담긴 구원의 권세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의 권세이다.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8] ☞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며/ 레18:1-6/ 20240728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18:3-5]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아래 행하는 자들이다. * [창26:5, 시119:56]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인위적 법도와 대치(對峙)된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 [출5:2]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세력 아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
하시고 * [신7:8]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옮겨 주셨다.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법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대치된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와 공격적인 삶"이다.

이 삶의 형태는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과 오늘날 이 세상과 모든 육체에 충만하다.
이 풍속을 용납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하는 삶이다.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 [창46:34], 육신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한다. * [롬8:8]

그러나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스스로 존재
할 수 없는 자신, 깨지기 쉽고 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창조주의 법도에 다스려질 수 있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
는가?

하나님의 법도에 이끌리는 자의 삶의 형태는 육신이 원하는 방향을 거스린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송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시
119:71-73] ㄹ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찌라 [창9:13-15]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 [창8:21]는 언약으로 제사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 약속'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더하셨다.

어느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를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옷으로 덮어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일을 인하여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가계를 저주하였다. * [창9:20-27]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우월함을 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 * [신9:5]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 [창6:5]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홍수에 잠긴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3:21]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 [창6:6]
모든 육체의 허물과 더러움은 여전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형성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에 반응하는 자다.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에 새겨진 무지개 약속은 검은 구름의 세력을 이기고 언약의 능력을 나타낸다. *[약2:13]

함의 마음은 모든 허물의 심판을 끝낸 무지개 약속을 담지 못하였다.
함의 시각으로는 아비의 허물 안에 포함된 자기 존재의 근거*[고전15:22]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무지개는 공허한 약속이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뻘뻘한 구름과 같은 육체의 저주가 경험된 마음에 숨어 있던 무지개 광선이 살아난다.

내가 네 허물을 뻘뻘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44:22]

홍수의 저주를 이긴 방주와 먹구름의 저주를 이기는 무지개 약속은 육체의 저주를 이기는 구원의 예표이다. ☞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레18:6/ 20240804

"너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레18:6]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을 씻기고, 입히고, 꾸미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제사를 통하여 씻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몸을 하나님의 규례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32: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에 이끌리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믿음에 의

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연고임을*[롬9:31-32] 성경은 밝히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범치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육체의 별거벗음을 드러내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과 혼인 관계로 비유해 적어 놓은 기록이다.

광야에 버려진 비천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적신을 씻으시고 입히시고 꾸미시고 면류관을 씌어 왕후의 지위에 올려 놓으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게 되어 그 몸이 세상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겔6:15]

이 상황은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도 여전하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빛으로 여기고*[롬4:4] 법과 행위에 갇히게 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3]

하나님의 교회가 법과 행위에 갇히면 가식과 위선이 옷이 되고 규모와 형식에 집착하는 종교 활동 단체가 된다.

적신이 적신의 행위로 별거벗음을 가릴 수 없다. *[사59:6]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사41:14]

하나님의 공훈은 하나님의 공훈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공훈 앞으로, 베엘로 올라갈 때*[창35:3], 육체를 위한 신상과 장식품을 버리고 오직 공훈과 약속의 옷으로 입히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19: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집약된 요구이고 명령이고
최후 통첩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
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2:3]

'거룩'이라는 말은 '안식'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인 일곱째 날의 압축된 설명
이고 얼굴이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되었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거룩함과 영원한 안식은, 사람(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을 위
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지 다듬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속3:9, 히10:10]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
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측시에 그 자민을 순
산하였도다 [사66:8]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자라난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세계에 참여하라, 누리라"는 의미이고, 듣고 참여하고
누리는 자의 상급이고 성장이고 분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레위기 19장에서도 기록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것을 위하지 말고, 화목제 희생을 열납되도록 드리고, 제물을 먹는 날의 규례는 소유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법도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kjv.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벧전1:15-16] &

몰렉/ 레20:1-5/ 2024081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레20:2-3]

'각도로 새겨 만든 우상'*[출32:4]은 사람의 원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인간의 본능에 속한 종교성이 만든 우상 중 '몰렉'이 있다.

'몰렉'은 '왕'이라는 의미로 '다스리다'는 어원을 가진 암몬 족속의 신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규례에 등장하는 우상이다.

그러나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몰렉을 섬긴 많은 흔적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 *[왕하 16:3, 왕하21:6, 렘32:35, 왕하23:10]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과*[창22:2] "초태생은 내 것이라"는*[출13:2] 말씀의 규례는 일견 몰렉의 제사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몰렉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가 구별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인간을 세우기 위하여 인간을 희생하는 몰렉의 제사에 비하여, 하나님의 제사는 인위적인 것이 거세되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이레'의 세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셨고*[히 11:17-19], 결국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몰렉의 제사, 대속의 어린 양이 없는 제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최선*[미6:7]을 요구하는 지극히 가증한 제사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됨을 원치 않는 패역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다. *[삼상8:4-20]

이 몰렉의 제사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어떤 의미의 교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고후13:3],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요일4:10]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종교 활동은 몰렉의 제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4-5] ㄴ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레21:1-3/ 202408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21:1]

하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곧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의 일을 맡는 특권을 갖는다.

특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새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 [골1:13]
그리고 이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들의 길을 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 [롬8:32, 벰전4:10]

신분은 출생으로 결정되지만 그 신분을 누리는 특권과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신분은 얻었지만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 [히6:7-8]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제사장 신분을 보존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규례이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에 속한 것들은 생명을 잃은 주검, 부정한, 버려진, 더럽고, 더럽게 하는 물건 등이다. * [민19:11, 레19:28, 시106:28, 마8:22]

영혼이 없는 몸은 주검이고 오물처럼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지 장식하거나 경배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다. * [요5:25, 롬6:4-7]

그러나 예수께서 준비하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죽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얽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 [마12:43-45]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벧후2:20-22]

여기에서 더러움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 일이다. *[롬1:24]

제사장이 죽은 자와 접촉으로 더러워지는 일은 오늘날 육신의 생각을 용납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육체를 세우는 샅꾼 목자를 통해 나타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3:19]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는 오늘도 듣는 자에게 유효하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발라 제하여 버린다고 경고하셨다. *[말2:1-3]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7:1] &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레22:1-3/ 202408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22:1-3]

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성물을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을 받으실 수 없다. *[요9:31, 나훔 1:3]

하나님께서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창4:4-5]

의(義)와 선(善)과 거룩(聖)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요일3:12, 막10:18, 레11:45, 마 12:35]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고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대상29:1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거룩함을 입은 자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고전11:2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하는 자의 시작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신의 눈에 들보를 기억하고 자신을 먼저 살피야 할 것이다. *[마 7:3, 갈6:1]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하는 일은 온전한 시각을 얻는 일이다. *[눅 11:34-36, 사40:12]

자기를 발견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할 수 있다. *[마16:24]

그러나 자기 위치를 잃은 천사*[유1:6, 사14:12-15]처럼 자신의 근본을 잃어 버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외식적이고 가증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4:3]

거룩함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을 얻어 누리고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

여호와의 절기/ 레23:1-3/ 202408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23: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절기'가 반포된 후 1500년이 지난 때, 절기 속의 예시를 성취하실 어린 양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으나 '여호와의 절기'는 이미 세상적이고 인위적인 '유대인의 명절'로 변하여 공허한 종교적 형식으로 박제(剝製)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양의 현현(顯現)으로 자기 백성 앞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믿어진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한다.

창세의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 일하신 열매가 '영원한 안식'이 되었고,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구체적인 내용인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셨다.

제 칠일 안식이 옛새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축된 것처럼, 참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장막절)로 세팅되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마음에 옛세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는 삶을 산다. *[출12:14] ㅇ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유1:1-4/ 20240825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홀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섹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1:1-4]

다위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여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삼상 25:29],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한 지키심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권고는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다.

"힘써 싸우라!"는 말씀 속의 세력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싸움의 대상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은혜를 섹욕거리로 바꾸는 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먹는' 애찬의 암초, 사랑의 잔치에 얼룩과 같은 존재이다.

두려운 것은, 누구든지 이 세력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브람의 세계로 돌아 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도를 무시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거짓 세력에 이끌리는 존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다. 때로는 암암리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타낸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단2:20, 유1:25]

이 거짓 세력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허구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

싸울 마음이 있으면 이미 이긴 것이다. ☞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C. S. 루이스/ 20240825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믿음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곧 반드시 실망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설령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 믿음 전체를 걸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결

에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들테면 자신과 같은 생각과 생명, 즉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고 계신 것이며, 양철 병정을 살아 있는 인간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서 단 한 가지를 뽑아내라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줘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 위대한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 준다고 느낀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았죠.”

맞는 말 같지만 이런 사람은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우리 식구들은 맨날 토스트만 먹으니까 빵은 떨어져도 상관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토스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도움의 원천이시니까요.

주님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몸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반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운반인 역할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료 되고 의지하며 인생을 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는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기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 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될테니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래와 같습니다.

좋은 모래를 갖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그런 일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한 때는 위대한 사역을 담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대상이 되었던 영적 지도자가 결국은 극심한 실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를 도와 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결국은 실망 하게 되고 죽어 버리는 모래와 같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전체를 걸거나 그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즉 거듭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직하게 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 C. S. 루이스 -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유1:17-21/ 20240828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
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1:17-21]

사람마다 알게 된 하나님이 다르고, 부부간이나 부자간에도 각각 믿는 하나님
이 다를 수 있다.

내일 형 집행을 앞 둔 사형수가 성경적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수 천
신도를 이끄는 목사의 아는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어 인위적으로 조립된
하나님은 곧 우상이고 지극히 가증한 가짜 하나님이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롬10:17]
외부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발견한 자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한다.*[롬1:17]

17절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롬1:2]
그러나 이 복음의 시작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기롱(欺弄)하는 자가
함께 하였다.*[갈1:9, 고후11:4, 마13:38]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함께 먹는 자로 있는 이 악한 세력은 육에 속한 자이고 성
령은 없는 자들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이 미혹의 세력을 분별하는 믿음이고, 육의 세력을 용납하
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먼저 성경 안에서 발견한 자신을 아는 믿음이고, 다음은 하나님의 공훈
을 얻는 믿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믿음이다.*[요일2:20]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거룩한 신앙은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날마다*[눅9:23, 눅11:3, 마25:1]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7:21-23/ 2024090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7:21-23]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종의 마음이 아닌 주인 된 마음을 품고 일을 한다면 주인에 대하여 죄를 짓는 불법이 되고,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의 행세를 하고, 왕이 아닌 자가 왕의 행세를 한다면 불법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놓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삶을 산다면, 그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불법자이다. *[요일3:3-8]

거룩한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양자(養子)의 신분은 양자의 원함이나 행위와 관계 없이 의부(義父)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의부의 뜻과 상관없이 양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얻으려는 시도는 의부 앞에 불법한 행위이다. *[롬9:32]

그리고 의부의 결정으로 양자의 신분을 얻은 자가 여전히 양자가 되려는 행위에 머문다면 이도 의부 앞에서 불법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양할 양자를 위하여 준비한 세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활을 입히는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3:5]

하나님의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증거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다.

예수의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회칠한 무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법한 종교 활동을 하는 자의 표상이다. *[마23:26-28]


그러나 유대인은 도리어 예수를 불법한 자로 여기고 그들의 열심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는 불법한 자가 자신의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열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눅22:37, 사53:12\]](#)

결국 우리에게 가득하였던 불법은 사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롬4:7, 히10:17\]](#)

우리의 구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구원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후2:14\]](#) 

초막절/ 레23:34-43/ 2024090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의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23:34\]](#)

○ 대력 7월은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10일 대속죄일, 15일부터 초막절 절기가 **ㄷ** 있는 달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1년 3 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신16:16\]](#)

유대력 7월은 태양력 9,10월이고 현대 유대력으로는 1월이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의 절기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의 초막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탄생과 구원의 근거를 전하고, 무교절은 구원의 약속을

견고히 한다.

초실절은 성령의 역사을 예시하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의 결론이고 완성이다.

봄과 여름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대속죄일에 이르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열매와 수확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을과 같은 절기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임시적인 초막이다.

사람의 몸도 잠시 입고 있는 장막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1:24-25]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자신을 초막으로, 장막성으로 여기는 나그네들이고 이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감춰 놓아 보호하시는 보호자들이다. * [마13:44]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27:5]

오늘날 이 나그네의 초막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이고, 반석 위에 지은 안전한 처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나타내는 실체이다. ☞

슬로밋의 아들/ 레24:2, 5, 10-16/ 2024090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며 [레24:2]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 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찌니라 [레24:16]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과 '쳐서 만든 금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낸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구워 낸 열두 진설병은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물린 열두 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열두 지파, 곧 오늘날 하나님 교회의 예시이다.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고, 매안식일 진설하는 떡의 예식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규례이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은 이 지극히 거룩한 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훼방하는,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는 사망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거룩한 삶에 관한 규례 다음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기록되었는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남편은 애굽 사람이다.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였다.

결국 슬로밋의 아들은 진 밖으로 끌려가 온 회중의 돌에 맞아 죽었다.

슬로밋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피와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다.

사람의 피는 무익하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있게 한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그 피의 구속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누리는 지혜와 능력이다.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과 '쳐서 만든 금 등대'와 '고운 가루로 구워 낸 진설병'

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규례이다.

대속의 피 없이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슬로밋의 아들은 '자기 하나님'을 저주 하였다. *[15절]

이 행위의 진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히 10:19-29]

하나님 앞의 축복과 저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 ☞

희년(禧年), 요벨의 해/ 레25:8-12/ 20240911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 구
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

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

을 먹으리라 [레25:8-12]

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와 완성은 '안식'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쉬심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이다. *[히4:10]

참 안식의 의미와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한다. * [창2:1-3]

첫 사람 아담을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저주 받은 땅은 인생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는 수고와 흠으로 돌아가는 허탄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하였다. * [창3:18-19]

그러나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는 일이다.

안식년은 육년 동안의 경작을 멈추고 제 칠년의 땅으로 쉬게 하는 규례이다. 그리고 일곱 안식년이 되는 사십 구년을 계수하고, 제 오십년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으로 정하였다.

희년의 원어 요벨(yo-bale)은 '양각(羊角)나팔 소리'의 의미를 갖는다.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졌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죄의 사슬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명하였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3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은 '내 것이 있는 줄 아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것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의 안식이다.

이 안식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여섯째 날의 회복이다.

나팔 소리에 실려 퍼진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귀에 들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또 한번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31]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 15:52] 

할레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레26:1-2,41-42/ 20240915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찌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26:1]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레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레26:41-42]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의 축복'이 아닌 '불순종의 저주'에 이르게 하였다.

비닐 봉지에 숯불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될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잠6:27-28]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순종하는 백성'에 있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의 회개'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11:32]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의 본성은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에 할레를 거부한다.

할레 받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자기를 위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

과 같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일,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별과 능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의 사람인 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시39:4-6]

하나님의 할례와 안식은 은혜와 공훈을 입은 자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안식의 세계로 옮겨지도록 거듭나는 일은 결코 인간 수고의 결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의 성공적인 순종을 자신의 수고의 숨소리와 함께 나타내려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깨달아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 [시14:3]

자신이 순종하여 구원의 삶을 사는가? 공훈을 입어 구원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훈을 입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 [시40:11]

깨달음도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을 입은 결과이지 사람의 지혜와 수고의 열매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유1:21]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번제로 시작한 레위기는 마지막 장(章)에 이르러 서원(誓願)과 생축의 첫새끼와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과 여호와와 십분의 일에 관한 규례를 전하고 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지를 아는 지혜를 성경은 전하고 있다.

‘번제’의 원어 직역은 ‘올림제’이다.

드리는 제물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제사가 번제임을 생각할 때, 육(肉)에 속한 것이 소멸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사의 규례에서, 그리고 서원과 바치는 규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서원’의 원어 ‘네테르’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맹세를 뜻한다.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이지 하나님의 명하신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드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드리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함께한다. ☞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찌니라 [레27:8]

이 처방 안에 은혜의 세계가 숨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감추어 놓은 은혜의 세계이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막5:25-29]의 이야기는 이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씀이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아무 것도 없는 여인은 예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었다.
하나님께서 소문을 듣게 하시고, 옷에 접촉만 하여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난
한 여인에게 주셨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으실 수 없다.
혈루증 여인의 인위적인 모든 소망이 끝난 시공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마음을 받
으신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
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6-
8]

하나님의 인자와 모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눅16:1-13/ 20240922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 하리라 하고 [눅16:1-4]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 [고전2:6-7]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 기억된 말씀은 생각 안에서 간섭을 받고 조작되고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어 세상의 지혜로 변질될 수 있다.
*[사5:2]

그래서 사람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아는 말씀'은 생기를 잃고 권태에 이르게 하지만, 사람이 호흡하듯이 '듣는 말씀'은 날로 새로움을 더한다. * [고후4:16]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도 육에 속한 세상의 지혜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부자의 청지기가 사무를 잘못하여 쫓겨날 상황에 이르러,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임의로 탕감하여 주었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고 하였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재산 관리인데, 어떻게 이 불의한 결정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일이 되었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교훈은 13절에 이르러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다. * [마6:24]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겠으나,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치명적인 내용인 "하나님만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 * [시14:2-3, 욥15:14-16]에 동의하는 자는 많지 않다.

더욱 가증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함께한다는 점이다. * [롬7:21-23]

이 불의는 모든 육체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아래 처

리되는 일이다.

이 불의가 없는 육체가 없고, 이 불의 없이 예수 십자가 세례에 참여할 수 없고, 이 불의에 대한 분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주인의 지적은 청지기로 하여금 고민하고 탄식하게 하였으나*[3절], 결국은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였다.*[4절]

"네 보던 일을 셈하라"는 주인의 음성은 청지기로 하여금 쫓겨나기에 충분한 자신의 불의를 확인케 하였다.

그리고 어떤 변명도 용납할 수 없는 청지기의 마음은 이미 쫓겨난 마음이 되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다"는 고민과 탄식에 이르렀다.

이 탄식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발하는 탕자의 탄식과도 같은 회개된 심령의 울림이다.

회개된 심령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불의한 청지기를 위하여 열어 놓은 하나님의 지혜는 '탕감의 세계'이다.

이 지혜는 다말에게 열어 주신 생명을 얻는 지혜*[창38:14]이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죽어가는 문둥이들이 양식을 얻는*[왕하7:3] 지혜이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사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죄의 빛을 영원히 탕감하시는 분과 사귄다는 공동체이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일, 남의 일에 충성하는 일, 여기에서 충성(忠誠)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충성이 아니라 한자어에 나타난 그대로 마음(心) 중심(中)에 말씀(言)이 이루어진(成) 믿음의 세계이다. (kiv. faithful, 원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

따라서 불의한 것에 대한 믿음이란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누리는 분별이 아니겠는가.

자기 자신, 불의한 육체에 대한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한다. 卍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었다.

헌데를 앓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고통 가운데 머물다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

부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고통의 현장인 음부에서도 자기의 주장이 굽혀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잠잠하다.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구원을 대변하여 준다.

나사로를 품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들려준 결정적인 심판의 근거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일"이다.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예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셨고,*[눅 24:27] 빌립은 나dana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를 증거하였다. *[요1:45]

예수의 권세 아래 옮겨진 자들은 율법의 권세를 경험한 자들이다. *[마21:23-27, 요 5:46]

헌데를 앓고 헌데가 드러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가려진 육체로 여유로움을 누리는 부자의 모습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반응을 암시한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존 재임을 알게 한다. *[롬3:20, 엡5:13-1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부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처하나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믿음에 함께할 수 있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듣는 자에게 들리는 생명의 약속이다. ☞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시5:1-8/ 20240929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 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 윗의 묵상은 기도가 되고 부르짖음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길을 구한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다윗은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나 다윗에게 스스로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 * [시편65:3, 시18:17]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입었다.

원수의 세력은 다윗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다윗은 이 세력에 대하여 민감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아침부터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는 다윗의 노래가 되게 하였다. * [시57:8]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수(怨讐)가 있는 자에게 형성되는 절실함의 세계가 있다. * [눅18:3]

이 절실함의 탄식이 다윗의 노래이고,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공훈이 다윗의 찬양이다. ☞

마음이 정직한 자/ 시7:10/20241002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 앞에 섰다.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은 자신들을 정탐으로 여기고 도적으로 취급하는 애굽 총리에게,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독실하고 정직한 자들임을 증거하려고 하였다. * [창44:16]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죄악, 그러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과오를 기억하게 하였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자들임을 시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정직함은 요셉의 형들 자신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요셉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의(義)에 다스려진 마음이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적발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이다. *[렘17:9-10, 롬3:4-5]

그리고 이 의(義)의 판단에 복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 11: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119:7]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된 모든 대적에 대하여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단호히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다스려진 마음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의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 14:9] 율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8:9/ 20241006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경배나 찬양을 원치 아니하신다. *[마21:14-16, 눅19:28-40]

겨울의 언 땅이 봄날의 햇살과 온기에 녹으면 잠자던 생기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주 받은 땅에 보혈의 온기가 덮이면 죽었던 영혼의 호흡이 돌아와 숨을 내 쉰다.

저주 받은 땅에 덮힌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땅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

이 찬양은 사람의 마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입는 어린 아가의 젖냄새와 같은 향기이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부이었던 땅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 후에 온 땅은 빛의 세력으로 덮이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노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시9:10/ 20241009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하심이니이다

지금 한 영혼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옷을 당장 벗고 씻을 마음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옷이 살아 있는 동안 벗을 수 없는, 뼈에 붙어 있는 가죽이라면 이는 치명적 문제이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이 더러움을 결코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죽지도 못하고 더

더러움과 함께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세력이라면, 이 세력이야말로 더러움 자체 이상의 악질 원수가 아니겠는가?

어쩌다 창기가 된 인생이 창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바로 창기의 원수가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이 더러움을 처리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한 영혼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함께해야만 하는 영혼의 주인(主人)이 있고, 이 주인에 의하여 그 영혼의 더러움은 처리될 수 없다. *[엡2:2-3]

대부분의 인생은 이 인지할 수 없는 주인을 '나(自我)'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주인의 정체는 자신이 아니라 '죄(罪)'라고 설명하고 있다. *[롬7:20]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 세력은 인생에게 더러움에 대하여 심상히 가르쳐 준다.

"더러움이 있긴 있으나 그리 많지 않다"고 가르치고,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잘 씻어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씻으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열심히 씻었기 때문에 관장을 거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정죄 속에 빠뜨린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6:14]

하나님의 구원은 평강 없는 주인의 세력에서 건져 내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 아래 옮겨진, 주인이 바뀐 구원이다.

모든 인생은 더러움 안에 머물게 하는 주인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렘2:22]

이를 인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제단인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을 씻은 자들의 새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증거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옮겨진 자들을 위하여 옛 세력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원수를 멸하신 증거와 의인이 누리는 거룩함과 견고함을 증거하는 주인으로 함께하신다.

*[고전6:11] ㉞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시편10편/ 20241013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진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 *[히11:6]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다.

이 탄식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환난도 주셨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부르짖음은 환난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보다도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선 더 이상 환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23:4]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다윗에게서 멀리 계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이실 수 없다.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세력은 다윗의 생각 안에서 역사한다.

오늘도 모든 육체의 생각에 출연하는 옛 주인, 옛 아버지 마귀*[요8:44]는 내면적 환난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 악한 세력은 대표 주자(走者)는 교만이다.

교만은 육에 속한 자의 삶의 열매이고 높은 마음이고*[사13:14]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품는다.

두려운 것은, 교만에 취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교만한 자의 안력(眼力)이 하나님의 분별에 미치지 못하여*[5월] 교만한 자는 결국 스스로 판 응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파멸케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교만의 세력이 모든 육체의 뼈 속에 스며있다.

이 환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 *[막7:21-23]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 환난의 형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8]

자신의 눈에 들보와 같은 교만이 있는 줄 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는가? ㅎ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삼상21:1]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아히멜렉을 만난 그 곳에서 또 다른 피난처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으로 여기는 다윗은 결국 가드 왕 아기스를 피난처로 삼았고, 거기에서 또 다윗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모습을 연출해 내었다.

다윗은 영혼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가 아니라 새 같이 산으로 도망하려 하였고, 사악한 세력의 화살에 표적이 되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義人)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이다. *[창15:6, 롬 4:23-24]

의인의 터도 하나님께서 기초하여 놓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반(基盤)이다.

의인의 터 위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세움을 입는다. *[시32:1, 62:2-3]

다윗의 허물과 죄가 이 터를 무너뜨릴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하심과 가리우심'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인이므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엡2:1]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이고, 의인 된 삶의 시작이고 기초이다. *[고전3:11]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kjv.단련, 시험)하시므로 구원의 터(기초)를 견고케 하신다.

다윗에게 임한 환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고 무너질 수 없는 의인의 터를 확인케 한다. ㄹ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 시편 12편/ 20241020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

다윗이 환난 가운데 찾고 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7편), 영원무궁한 왕이시고(10편), 성전에 계신 분이시고(11편), 순결한 말씀의 하나님(12편)이시고, 사랑(13편)이시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어 흠 도가니에 일곱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함과 순수함의 의미에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은(銀)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은 도가니에 일곱번 단련 되어 제거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시66:10]

불순한 것에 해당하는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혀는 누구의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편으로 주를 섬기고 또 한편으로 세상(자신)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면 *[\[마6:24\]](#), 이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하나님께 아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이다.

이 아침꾼은 선한 모습으로 숙주(宿主)를 공경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다.

사람은 아침꾼과 친구를 구별해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처럼, 가짜의 겉모습은 진짜를 닮았다.

모든 육체의 이 비루(鄙陋)함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만성 질환이다. *^[렘8:22]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유향과 의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혀를 다스리는 처방을 준비해 놓으셨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지적과 책망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은과 같이 순결하여 듣는 자에게 예리한 검과 같이*^[히4:12], 치료하는 광선 같이*^[출15:26, 말4:2] 임하신다.

결국 다윗이 찾은 피한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말씀이다.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윗은 불순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불순한 세력으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 40:11] 卍

위선자의 독백/ Hypocrite's Soliloquy

- 프란시스 퀴스 Francis Quarles 1592-1644 -

내 몸에 맞는 복장을 만들기에 종교처럼 적합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이처럼 최신 유행에 맞추기 쉽고 유익한 것은 없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실속을 취할 수 있는 복장과도 같다.

나는 이 둘을 모두 섬기는데, 이 둘 사이에서 적당히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그러나 실은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면, 난 세상을 섬긴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섬긴다.

세상의 종된 나 자신의 욕정을 채우면서,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 일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의 집에도 나보다 더 자주 가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나보다 더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도 없다.

나는 금식하는 자와 함께 금식하고, 먹는 자와 함께 먹는다.

나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한다.

나처럼 자주 기부금을 내는 사람도 없다.

나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 대며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자도 없다.

종교적인 삶에 어떤 면으로도 난 부족함이 없다.

내게 탐심이 있을 때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고, 비참할 때면 내가 절제하는 것으로, 우울할 때면 경건한 자의 슬픔으로, 기쁠 때면 영적 즐거움으로, 부자일 때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할 때면 양심적인 삶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면 거룩한 자들이 나누는 대화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때면 악의를 품은 자들의 양심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의복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내 비밀스런 욕정이 담긴 구역질나는 가방을 숨길 수 있다.

이 옷을 입고서 난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면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현명하게 집례를 거행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할 때면 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 면목을 세우려 하고, 내가 부자일 때면 가난한 체하여 금전상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나는 분리주의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유익함을 안다.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이것을 추종한다.
이것으로 일 주일에 세 번은 식사를 할 수 있다.

나는 가끔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것도 나는 다르게 묘사한다.
자선사업이란 특별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통 때는 자선을 행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는 나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도, 집에서는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몰래 행한다.

그러나 잠깐만!

내 영혼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 [마 23:13] ㉸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13편/ 20241023

세 종류의 영역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만날 수도 없는 음부* [사38:18]이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근심케 하시고, 원수들을 높이시려고 합니까?"

사망의 잠에 취할까, 원수들의 승전가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사망의 잠에 취할 수 없도록, 원수들이 승전가를 부를 수 없도록 해 놓은 사실을 다윗에게 보이심으로, 다윗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

으로 변케 하였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사 8:17]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 30:18]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찾고 기다리신다. *[마16:19]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잊고, 숨고, 근심케 하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사57:2]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로 오르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는 질문이 제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때와 기한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알 권한이 없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다.

제자들은 '때'를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성령'이라는 답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다.

예수의 증인된 삶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 가능하다.

예수의 증인된 삶은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자기의 때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세계인 긍휼과 사랑은 떠나기 전에도, 후에도, 허랑방탕할 때도, 돼지를 칠 때도,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도 여전하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때가 망하여 끝이 난 곳에서 아버지의 세계가 보였다.

자기의 때가 끝난 아들이 아버지의 때를 누릴 수 있다.

만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는 자가 있었으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자기의 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의 때가 끝난 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 다윗의 탄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을 잊은 적도, 숨은 적도 없으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 49:14-16]

다윗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는 인자와 사랑이다.

'때'를 묻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안에 있는 인자와 사랑의 회복이다. *[시25:10]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다윗에게 준비된 모든 것이고 지금 믿음 잃고 탄식하는 다윗을 포함한다. ☞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202410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14-1-3]

"**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이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26:12]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찢저 [사5:21]

해 아래 인생 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의 진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오만이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한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 *[마19:16-22]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더하셨을 때,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예수께서 청년에게 제시한 요구는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요구이었으나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이 원하는 하나님은 재물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청년의 어리석음은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마19:26]

그러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신을 인지하게 된 자,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 28:26]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116:6] 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
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
시다.

성산에 거하시는 예수의 삶은 정직히 걷는 삶,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가셨다.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며, 참소치 아니하고,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망령
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원을 변치 않고 이루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로 판결을 굽게하지 않는 일은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워딩(wording)으로 25번 진리
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고 능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참소치 아니하였고, *[눅23:34] 망
령된 세력을 경책하였다. *[마12:34]

뿔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존대하여 함께하였고, *[눅19:5]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루셨다. *[마26:39]

예수께서 자신이 베푼 일에 대한 보상을 원치 않으시고*[사55:1, 마10:8], 과한 충성을
거절하시고*[눅18:11-12, 마16:23], 무죄한 자를 지키셨다.

주의 성산에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자기 사람들*[요13:1]에게 나타 내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셨다. ☞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시16:1-3/ 20241103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16:1-3]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12,20]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은 하나님을 잃고 장구할 수 없 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잃은 인생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화 목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타낸 의로운 행위*[롬5:18]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의 (義)와 영광의 근거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나,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 도 할 수 없다.” - 윌리엄 셰커 -

하나님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만일 시편 16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예시라면,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받으신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과 그 제물에 합한 마음이다.

*[창4:4-5]

희생의 피는 대속의 댓가로 속죄 제사의 예법에 따라 흘러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고 이 피가 죄를 속한다. *[레17:11]

그러나 4절에 기록된 '피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가 아니다.

(*'전제/ 奠祭, 灌祭'의 히브리어 의미는 "붓다, 쏟다"이고,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제사법이다. 신약에는 관제로 번역되어 있고, 바울이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빌2:17])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 이미 정하여 놓은 하나님의 규례를 좇은 결과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중심에서 형성된 간구를 내려 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잔에 담았다. *[마26:39]

이 시간이 예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부딪히는 훈계와 교훈의 시간이 아닐까?

훈계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교훈이 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밤마다 취하는 수면의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 그리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심장도 그 심장의 사람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는다. *[눅12:19-20]

이렇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도리어 사람을 제어하는, 그 영역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눅7:7-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인자/ 시17:7-15/ 20241110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시17:7-10]

진화론자들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유일하게 현존하는 인류라고 한다.

원숭이보다 뇌가 크다든지, 직립이라든지 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호모들은 멸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 남아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생류(現生類)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 전쟁과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에 주로 사용되어 호모 사피엔스는 인재(人災)로 인한 스스로의 멸종을 예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세상에 살아 남았다.

가인의 후손은 육축 치는 자,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

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 성(城)을 쌓고 전쟁을 불사(不辭)하는 가인의 후손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현생류 ‘호모 사피엔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4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의 세계는 무엇인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기득 우월 세력*[엡2:2]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가?

이 세력은 모든 육체의 중심에 스며있는 불의,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세력이다.

*[롬1:18]

더욱이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창6:2-4], 인위적 종교의 세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이 먹이를 잡기 위한 것처럼, 이 불의한 세력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모양을 내면서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한 삶을 살게 한다.

이 세력은 아벨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마23:35]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통하여 나타나 세상을 진동케 하며, 오늘도 영적 우월을 과시하려는 가짜 오른손잡이*[시144:8]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의로운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가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호14:1]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9:26]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17:15] ✎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다/ 시18:25-30/ 20241113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에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옮겨질 수 있었다.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쩌면 파탄에 이를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주문은 인간 '아브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람'의 세상에서 피하여 '아브라함'의 세계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성도의 승전기이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완전함과 깨끗함을 보이신다.

*[25, 26절]

피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창수(漲水) 같이,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이 항상

있는 허구의 세력이다.

이 세력은 하나님을 구하지만 피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 생각에 머무는 자로 만들고 결국 힘의 하나님*[1절]이 아닌 장식품과 같은 하나님을 경함케 한다.

그러나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 피하는 자의 눈을 밝힌다. *[28절, 마6:22]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하여금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하며 이미 있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안에 속한 자신을 보게 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25:10]

피하고자 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인자와 진리를 확인코자 하는 몸짓이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찌라도 주는 일향 미쁘셔서*[딤후2:13] 피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피한 자의 방패가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신다. ☞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19:1-6/ 20241117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19편 다윗의 시는 하늘에 관한(1-6절), 율례에 관한(7-11), 사람에게 관한(12-14)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

이 세가지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생명의 지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힘의 규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케 하는 지식이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피조된 만물에 투과되어 나타나 있다. *[롬 1:20]

작은 세포 속 DNA에 온 몸을 이루는 형질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엔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구체적인 지식이 새겨 있고, 이 세계는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결코 인위적이지 아니한 입술의 찬송을 받으신다. *[시8:2, 눅19:4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보이신 세계는 셀 수 없는 별의 세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이다.

광대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없는 것 같은 아브람이 만난 그 곳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아브람의 믿음은 아브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납득하여 아브람의 대뇌에 정리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밤 하늘의 별을 볼 때,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무언의 메시지로 아브람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 무언의 지식은 마치 온 땅에 온기를 공급하는 태양처럼, 오늘도 모든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온기가 되어 이 땅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의 지혜와 분별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성령이 듣는 자로 하여금 큰 확신에 이르게 한다. *[살전1:5]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 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19:7-10]

차자(次子) 야곱은 모친 리브가의 말을 따라 자신을 형인 에서로 꾸미고 아버지

다말은 과부 옷을 벗고 기생의 모습으로 시부 유다를 맞이 하고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조상의 반열에 기록되었다. *[창27:1-29]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모세 율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내려진 곳에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요8:11]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판결들은 완전한가? 우리는 어떻게 읽는가?

만일 이 하나님의 판정에서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소성을 읽어 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완전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법도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의 규례에 다스려진 자들은 쓰디쓴 인생 길*[예3:15]이 다디단 삶의 여정으로 소성케 되는 결과에 이른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완전한 효력을 나타낸다.

*[롬8:2]

예수께서 이 법들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 *[롬 8:3, 히7:18]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증거가 소성한 자들의 마음에 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사57:15] 卍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시19:12-14/ 20241124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19:12-14]

성경은 모든 죄를 '부지중에 범한 허물'*[레4:22]과 '고의로 짓는 죄'로 구분한다.
부지중(不知中)은 사람이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사람이 하늘에 관하여 다 헤아릴 수 없고, 자신에 관하여도 다 알 수 없으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는 일은 혼돈이 혼돈을 헤아리는 일과 같다. *[골2:8, 마15:14, 고 후10:12]

그리고 사람은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고의로도 범죄하는 존재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자에게 인식할 수도 없는 숨은 죄가 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 죄를 고한다면, 자신이 알게 된 행위와 마음의 범죄를 고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자백이 될 수 없다.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에 의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심하고 파멸에 이른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시51:17]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백은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파산한 신분으로 서는 것이다.

입을 티끌에 댈찌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찌로다 [애3:29]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119:25]

욥은 자신이 공평한 저울에 달려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 받고 싶었다. *[욥31:6]

욥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결정을 헤아릴 때, 자신이 겪는 고난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욥은 지금 자신의 저울에 자신과 하나님을 달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욥을 책망하실 때, 하마와 악어를 비유로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욥의 교만을 지적하였다.

무지한 자가 무지한 줄 모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수밖에 없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65:3-4]

다윗은 죄악을 이길 수 없었고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에겐 구속자가 계신다.

다윗의 복과 다윗의 만족은 다윗의 구속자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결과이다. ☩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시20:1-3/ 20241127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셀라) [시20:1-3]

〃 **오**리가 일어나 뵤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35:3]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겪은 환난과 환난 중에 야곱을 건지신 하나님의 사역과 그 내용을 전하는 가장 간략히 표현이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이다. *[출3:15]

지령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41:8-14]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인하여 다윗왕으로부터 왕자의 대접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다. *[삼하9:1-11]

사울의 집은 다윗과 대적의 관계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이 대적의 관계를 덮어 버리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은 은총을 입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 *[삼하16:1-4, 19:24-30]

므비보셋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환난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의뢰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입에서 자기 생명의 보장이 된 아버지의 이름, 다윗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인 "요나단"을 들을 수 없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자를 다윗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긴다.

야곱은 환난날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단을 쌓았고, 다윗은 환난날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을 높이며, 다윗을 높이며, 우리를 높이 드신다. &

주의 힘과 구원/ 시21:1-2/ 2024120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셀라) [시21:1-2]

다윗은 주의 힘에 인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노래한다.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예시이다.

하나님, 히브리어 ‘에로힘[el-o-heem]’의 어원에서 ‘힘, 강하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힘’의 열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힘을 얻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사53:12]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 ☞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22:1/ 20241204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
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 외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임을 나타
낸 탄식이다.

"왜 버리셨습니까?"라는 물음은 버려짐에 대한 참담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
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대답은 '죄'이다.)

"버리셨나이까?"는 완료형 문장이다.

지금 예수는 버려진 영역에 속하여 있고*[눅5:12,14] 육체를 입은 마지막 아담의 신분*[교전15:45, 47]으로, 그리고 아람어 방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다.

결국 십자가 예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는 "다 이루었다"*[요19:30]는 말씀으로 온 세상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 양의 역할을 성취하셨다. *[요일 2:2]

예수께서는 이 수난의 잔을 원치 않으셨다. *[마26:39]

그러나 예수를 둘러싼, 능욕하는 무리와 가시 면류관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박히는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시공(時空)에 이르렀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다. 능욕의 세력은 힘센 황소처럼, 삼키려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나는 물 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쫓물같이 녹았고, 나의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혀는 잇들에 붙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진토에 던지셨다."

상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이 예수의 수난은 '온 세상 죄에 대한 값'이다.

이 죄의 세력은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뼈 속 깊이 스며 있는 비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요일4:6]

이 악한 세력은 개처럼 예수를 둘러싸고 침 뱉고 찌르고 능욕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그리고 멀리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육체에도 여전히 숨어 또아리 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사53:12]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하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이라 [고후4:10] ☞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0241208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23:1-3]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시’라면 시편 23편은 ‘십자가 그늘 아래 쉬는 자들의 노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은 하나님과 동행의 기점이고, 사권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

여호와의 것,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어/ 시편 24편/ 2024121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24:1]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함께 만물을 생성하는 힘의 시작과 온 우주를 진동하는 지존자의 호흡을 느끼게 한다. *[시33:6]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것이 세워지고 건설되는 터는 바다와 강들이다.

셋째 날의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드러난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11:3]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이고 '터'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를 '바다'로 불러 노래한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물을 이루고 큰 물이 모여 바다에 이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마음에 임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 '여호와와 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시24:3-6/ 20241215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시24:3-6]

바다와 같이 넓고 엄위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제할 때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6:3]는 예수의 말씀은 손에 관

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말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의 마음으로는 구현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법도이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마음의 세계이다. 죄와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인생에게 "청결한 마음"은 원함에 머물러 있는 가상의 세계이다. *[\[마26:41, 롬7:19\]](#)

그러나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뽕나무가 뽕혀 바다에 심겨지는 세계가 있다. *[\[눅17:6\]](#)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마음과 그 수난(受難)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뽕혀 바다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5-8\]](#)

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자이다.

예수를 품은 마음은 허탄하고 거짓된 자신과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마8:20, 고전11:1, 빌3:17-21\]](#)

이 마음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깨끗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5:8\]](#) ☞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25:1-5/ 20241218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된 이 시편 25편 말씀은 암송을 위한,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 신앙을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25:1-5]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바람이 없으면 풍향계는 할 일을 잃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풍향계는 맞바람을 향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의 때, 풍향계처럼 환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향한다. * [시121:1-2]

거기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환난은 다윗의 영혼을 흔들며 깨워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 살아 있는 영혼이고, 찾지 않는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영혼이다.

다윗의 영혼은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 [4절]

시편 103편에는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 * [시103:8-18]

그러나 만일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다윗의 원수임이 틀림없다.

이 원수의 정체는 소시의 죄와 허물이고, [7절] 죄와 허물은 모든 육체의 체질이다.

육체로의 출생이 곧 환난의 시작이다. *[사51:5]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와 인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타락의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9:2/ 2024122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사9:2]

"환 영광림(歡迎光臨)"

중국에서 식당이나 상점 입구를 장식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이 문구는 손님을 '빛(光)으로 표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써 붙인 '환영광림'의 용도는 "환영전림(歡迎錢臨)"이겠지만, 손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표현은 지혜롭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참빛'으로 임하셨다. *[요1:9]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사9:2]

벗긴 몸으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행16:25]

어둡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임한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죄수들의 마음에도 비취어지면서 빛의 세력은 감옥에 가득차 있던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야 말았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동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지식과 지위를 얻은, 나름대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나, 어느날 그들에게 나타난 별의 빛은 그들이 어둠에 있는 줄 알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인신 참빛은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동방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은 동방 박사들이 헤아리기 어렵고 두려운 선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동방에서 떠나게 하였다.

박사들의 험한 여정 중 한 때, 자신을 인도하던 별을 잃었으나 동방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여전히 빛을 발하는 별을 보게 하였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2:10] ㉞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25:10/ 220241225

'여호와의 모든 길', 구원의 사역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근거이고 능력이고 결과이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된 것에 성취될 결과가 예시되어 있다.

결과가 언약을 증거한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이고, 말씀이 믿어진 자이고, 말씀에 다스려진 삶 나타나는 자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믿어진 자는 생명을 구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을 믿는 자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언약의 증거를 나타낸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빛이 있는 삶'을 산다.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막10:46-52] 여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하였다.

바디매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이다.

여리고에 오신 예수는 바디매오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언약의 현현(顯現)이고 하나님과 바디매오와의 언약의 성취이다. *[사11:1, 35:5]

바디매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는 바디매오로 하여금 겹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께 뛰어 가게 하였고 예수는 바디매오와 함께하였다.

여호와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귀결된다. ☩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시25:11/ 20241229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시25:1]

다윗의 중대한 죄악은 무엇인가?

성경엔 죄에 관한 절대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고, 사람의 속에 숨겨 있는 죄를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재활 불가능한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단9:9, 렘17:9, 시19:12, 잠4:19, 렘13:23, 렘2:22]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예수를 능욕하여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의 범죄에 이르기 까지, 그 범죄 사실은 첫 사람 아담에 임한 죄열(罪孽)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패역

이다. *[롬5:12, 사59:2, 시56:5]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진원이 근본적인 신분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다. *[시51:4-5]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자백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므로 범죄하였다는 지극히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에 관한 고백이다.
결국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하나님의 목전에 벌인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결과이다.

하나님 앞에 중대하지 않은 죄는 없다. *[마5:26]

모든 죄는 중대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으시다. *[나1:3]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의 사역이시기에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값을 제시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인 줄 알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패역은 죽은 자가 죽은 줄 모르거나, 죽은 자임을 거부하는 세력이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을 감각하는 자에게 비로소 생명을 주시는 자의 음성이 들린다. *[요5:25]

생명을 주시는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 [행4:12] ☞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23-26]



<https://blog.naver.com/shindk55>